

韓國에서의 漢文學 研究 動向

박영호*

|| 차례 ||

1. 머리말
 2. 漢詩
 3. 漢文小說
 4. 漢文散文
 5. 漢文批評
 6. 漢文教育·經學·其他
 7. 맺음말
- 참고문헌

【국문초록】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시, 한문소설, 한문산문, 한문비평, 한문교육, 경학, 기타 등으로 나누어 최근의 한문학 연구 동향을 살피고 앞으로의 한문학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로 한다.

첫째, 90년대 이후 한시 연구의 동향은 '근대'나 '민족'을 확신하고자 하는 한시 연구가 줄어들었으며, 사상적으로 '여성'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최근 지역학과 연계되어 자연의 문제가 새로운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중화가 학계의 화두로 등장하고, 연구방법론에서 실사구시가 중시되고, 이와 함께 한시 분류의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 분류 기준을 설정하고 분류 방법을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한문소설의 최근 연구 동향은 개별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성과와 한문소설의 사적 전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다. 최근의 연구자들은 전기소설을 패러디한 일련의 작품이 지속적으로 창작·유통되던 조선 후기의 실상에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 조선 후기 한문 소설의 국문 소설로의 전환, 국문 소설의 한문 소설로의 전환에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집중적 탐구가 요구되며, 한문 소설의 미적 특질에 대한 연구와 동아시아 지평 위에서 우리 한문 소설사를 조망해보려는 시도도 필요하겠다.

셋째, 90년대 이후 한문학연구는 마치 산문분야만 있는 것처럼 산문의 외연이 확대되었고, 연구자 역시 이 분야에 집중 증대되었다. 80년대의 주요한 성과였던 열하일기 연구, 고문의 성격과 전개, 정조의 문체반정에 대한 연구, 특정 작품에 대한 문체 미학적 접근 등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소품문에 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래의 성격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채로 특정 작가의 작품을 분석하여 개별적인 성격을 해명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각 갈래의 양식적 특성을 작품의 내적 구조와 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한문비평은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시화가 비평으로서 갖는 특성에 대한 논의가 적극성을 띄었으며, 품격 연구는 2000년대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성과이다. 한편 성리학이 한문비평에 끼친 영향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연구대상이 되는 작가의 확대와 성리학자들의 문학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점은 이 시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원전비평 연구가 소원하고 문학과 다른 예술장르와의 교섭 양상에 관한 연구, 고려전기 이전의 연구가 필요하겠으며, 독자적인 비평이론 정립 역시 풀어야 할 과제로 볼 수 있다.

다섯째, 한문교육과 경학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시도는 있었으나, 90년대에 들어와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최근 한문교육의 위상 전략과 관련하여 한문교육에 대한 관심의 확장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교과교육학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서 이 분야를 전공하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며 한문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21세기 한문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경학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한국에서 경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과 시각에 대한 성과가 대부분이다. 21세기 경학 연구는 기왕의 연구되지 않은 다수의 경학가에 대한 연구, 경전별로 전문적인 연구, 중국경학과 비교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경학사를 서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한문학, 연구방향, 지역학, 대중화, 한문소설, 소품, 한문비평, 한문교육, 한시연구, 경학

1. 머리말

한문학은 이른 시기 한문이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產生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2천여년의 역사를 지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사는 극히 日淺하여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수십 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문학 연구사는 한문학에 대한 한국문학으로의 歸屬에 대한 학계의 인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대체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1931년 金台俊의 『朝鮮漢文學史』가 저술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광복 이후 1950년대까지는 한국문학에서 한문학 배제론이 보편화되면서 한문학에 대한 연구는 그 의의를 정당하게 확보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가 한국문학의 범주에 편입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거친 후, 1960년대부터는 국문문학과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는 說話, 小說 등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한문학 작품은 한국문학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보편화되면서, 중·고등학교에 한문이 독립된 교과목으로 설정되고 몇몇 대학에 한문교육과가 설립된 이후, 한문 교사와 연구자들이 다수 배출되었고 그들에 의해 한문학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0년대까지 20여 개의 대학에 한문과가 설립되면서 한문학에 대한 관심이 확장됨은 물론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에는 학부 과정보다는 대학원에 한문학과가 증설되어 현재 30여 개의 대학원에서 한문학 연구 및 한문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그 결과 짧은 연구 기간에 비해서는 많은 성과를 축적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간의 한문학 연구사를 살펴보면, 한문학 연구의 전반적인 상황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거나 특정 시대와 관련하여 검토하기도 하였으며¹⁾, 한국한문

1) 최신호, 「한국한문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 『국어국문학』 제81호, 국어국문학회, 1982.

학의 주요 분야를 구분하여 그에 대한 연구 동향과 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²⁾ 그리고 1999년에는 모산학술연구소에서, 2003년에는 대동한문학회에서 각각 '韓國漢文學의 回顧와 展望'이라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연구 성과와 방향을 정리한 바 있다.³⁾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의 한문학 연구 동향을 살피고 앞으로의 한문학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漢詩, 漢文小說, 漢文散文, 漢文批評, 漢文教育·經學·其他 등으로 나누어 그 연구동향을 살피기로 한다.

2. 漢詩

1970년대까지는 한문학 연구에서 협의의 국문학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인식되었던 설화, 소설 등 敍事文學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다가 80년대에 들어와서 한시에 대한 연구가 서사문학을 능가할 정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90년대에 들어와서도 지속되었으며 그 결과 두드러진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90년대 이후 한시 연구의 특징적인 현상은 1980년대까지 주류를 형성하

김건곤, 「고려 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쟁점」, 『한국 인문과학 연구의 현황과 쟁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이동환, 「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학논집』 제17호, 계명대 한국학 연구원, 1990.

박성규, 「고려조 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국어국문학 40년』, 국어국문학회편, 집문당, 1992.

박희병, 「조선시대 한문학 연구사 검토」, 『국어국문학 40년』, 국어국문학회편, 집문당, 1992.

2) 이원주, 「한문학 연구 동향」, 『한문학연구』 제6집, 계명한문학회, 1990.

3) 『모산학보』 제11집, 모산학술연구소, 1999.

『대동한문학』 제19집, 대동한문학회, 2003.

던 '근대'나 '민족'을 확신하고자 하는 한시 연구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사상적인 측면은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女性'으로 관심이 옮겨갔다. 따라서 90년대 이후 새로운 여성 작가가 발굴되고 또 여성 정감을 주제로 한 한시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⁴⁾

90년대 이후 새로운 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자연, 생태, 환경 등의 문제이다. 자연은 일찍부터 한시의 중요한 연구과제였지만, 최근 지역학과 연계되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문학 전반에 걸친 문제이지만, 대중화가 학계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대중화 방안 중 일차적인 것이 고전 번역이다. 그러나 기왕의 번역서는 산문 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기존의 번역서는 대중과 가까이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대중에게 다가갈 만한 한시 번역이 왕성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대적인 감각이 가미된 한시번역서들은 대중들에게 읽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후 한문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겠다.

한편 연구 대상과 분야가 확산되는 경향과 아울러 지적되어야 할 문제는 연구방법론에 대한 문제이다. 문학 전반에서 서구 문학의 흐름에 따라 방법론들이 차례로 변해갈 때 한문학은 서구적인 방법론에서는 비켜서 있었다. 새롭게 한문학 방법론으로 모색된 것으로는 '實事求是'를 들 수 있다. 학술의 관념적 공소성을 극복하고 과학적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실사구시'가 중시되고 있다. 치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한 실사구시 정신은 양적 팽창이 가져온 연구의 부실을 막는 데 일조할 수 있다. 또한 '실사구시'를 통해 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현할 수 있다. 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한시의 문예미와 연결되는데, 곧 한시라는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

4) 이런 경향은 박영민, 「사대부 한시에 나타난 여성 정감의 사적 전개와 미적 특질」, 고려대 박사논문, 1998. 등의 논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해함으로써 한시의 맛과 멋을 이해하는, 한시에 대한 감식안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구방법론과 함께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한시 분류에서의 문제점이다. 이미 80년대의 연구 동향에서도 지적된 문제이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한시 분류에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분류자의 자의에 따라 분류한다면 분류의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문학 작품의 분류에는 분류가 지닌 의미와 아울러 일정한 가치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시 전체를 포괄하면서도 貫通할 수 있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시인의 시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분류 기준을 설정하고 분류 방법을 세워야 할 것이다.

3. 漢文小說

한문소설은 다른 갈래와 달리 일찍이 연구자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實學思想과 결부되어 燕巖小說이 관심을 끌었다. 1930년에 시작된 소설 연구는 50년대까지는 제반 여건 때문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60년대 초에는 한문학 가운데 說話, 小說은 국문학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현재까지 한문학 연구의 주류를 이루어왔다. 朴趾源과 金時習의 작품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였던 70년대까지는 대체로 傳奇的·文獻的 研究, 실증 위주의 비교문학적 연구, 특정사상과 작가의식을 결부시킨 연구가 중심이었다. 이 외에도 소설의 기원을 신라시대 설화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夢遊錄의 장르적 성격과 작가의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野談 가운데 소설적 구조를 갖춘 작품들이 발굴되어 漢文短篇이라는 이름으로 학계에 보고되었다. 80년대에 들어와서도 70년대의 연구 성과를 계승하여 박지원과 김시습의 작품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한문소설의 통시적 체계를 세우는 연구와 야담집에 대한 종합적 연구, 한문 단편에 대한 연구가 늘어났다.

1990년대는 현실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함께, 이전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각색의 연구 흐름이 뒤얽혀 있던 시대였다. 야담분야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때에 이르러서 야담을 조선후기 사회변화와 관련지어 분석하려는 연구 분위기가 급격히 퇴조하게 된다. 작품 자체의 해석·평가를 유보한 채 작품 외부의 실증적 작업에 천착하게 된 것이다. 1990년대의 연구 분위기를 보다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분야는 아마도 개별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성과와 한문소설의 사적 전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일 것이다. 한문소설 연구 가운데에 가장 집중 조명을 받는 분야는 전기소설이다. 전기소설의 발생 문제와 관련되어 시작된 논의는 점차 한문소설사의 전개 과정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수이전』으로부터 『금오신화』에 이르는 초기 한문소설사의 구도를 새롭게 설계해 보려는 작업⁵⁾, 15세기 『금오신화』와 16세기 『기재기이』의 소설사적 위상을 대비적으로 밝히거나 17세기에 산출된 <주생전>·<최척전>·<운영전>과 같은 작품을 이전 시기의 전기소설과는 물론 조선후기 통속적인 국문소설과 연계하여 파악해 보려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들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작품론이 제출되기도 했다.⁶⁾ 그런 점

5) 김종철, 「고려 전기소설의 발생과 그 행방에 대한 재론」, 『어문연구』 26집, 어문연구회, 1995.

박희병, 「나려시대 전기소설 연구」, 『한국 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소인호, 「나말-선초 전기문학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6.

정출현, 「나말여초 서사문학사의 구도와 수이전」, 『인문과학』 12집, 경북대 인문과학연구소, 1998.

6) 박일용, 「주생전」,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박희병, 「최척전」,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이종묵, 「주생전의 미학과 그 의미」, 『관악어문연구』 16, 서울대, 1991.

정민, 「주생전의 창작 기층과 문학적 성격」, 『한양어문연구』 9, 한양대, 1991.

에서 1990년대 한문소설 연구는 전기소설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초기 한문소설사의 지평을 온전하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시야를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 전기소설이 본 궤도에 오른 15~16세기는 다양한 한문서사체가 병존하던 시대였다. 따라서 이시기의 사대부 문인의 필기·패설류 창작 환경 및 작품 세계는 앞으로 좀더 폭넓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에서 유입된 장편 백화체 희곡작품을 전기소설의 서사문법으로 변안·창작한 일련의 작품에도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 아울러 16세기 이후 상층 사대부들이 성리학적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소설을 이념교화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점도 유념해야 한다.

17세기를 정점으로 전기소설은 해체·쇠퇴하는 것으로 간주했던 기존의 통념에 대한 반론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연구자들은 조선 후기 새롭게 전개된 현실상황을 포착하여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에 곤란한 양식으로 전기소설을 규정하던 기존의 통설을 비판하면서, 전기소설을 패러디한 일련의 작품이 지속적으로 창작·유통되던 조선 후기의 실상에 주목하고 있다.⁷⁾

고전소설은 다른 장르와는 달리 엄격하게 구획된 계층간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상층과 하층, 고급과 저급, 중심과 주변, 남성과 여성 등 중세사회에서 인간과 그들의 문학적 실천에 대한 차별적 경계는 매우 다양하였지만, 소설에서는 그런 차별적 행위가 무력화되고, 계급을 초월하여 문

정출현, 「운영전의 애정갈등과 그 비극적 성격」, 『한국고소설사의 시각』, 국학자료원, 1996.

신동훈, 「운영전에 대한 문학적 반론으로서의 영영전」, 『국문학연구』 5, 국문학연구회, 2001.

7) 김경미, 「절화기담 연구」, 『한국고전연구회』, 창간호, 한국고전문학회, 1995.

이승복, 「한문소설 포의교집의 인물형상과 소설사적 의의」, 『규장각』 21집, 1998.

권도경, 「정생전의 서사구조적 특징과 18세기 전기소설적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18집, 민족문학사연구소, 2001.

학적, 정서적 교감을 나누었다. 그런 점에서 조선후기 한문소설의 국문소설로의 전환, 그리고 국문소설의 한문소설로의 전환에 관하여 좀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아야 한다. 뿐 만 아니라 한문소설이 가진 미적 특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동아시아 문학과 비교문화적인 시각을 견지하여 동아시아 소설사의 폭넓은 지평 위에서 우리 한문소설사를 조망해보려는 시도도 역시 필요하다.

4. 漢文散文

한문학의 여러 영역의 연구사 가운데 한문산문의 연구는 비록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지만, 현재 연구자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으며 그 성과물이 집적되고 있는 분야이다. 최근 한문학 연구에서 다른 장르에 대한 연구는 소강상태에 들어간 듯하고 오직 산문분야 만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한문학연구는 마치 산문분야만 있는 것처럼 산문의 외연이 확대되었고, 연구자 역시 이 분야에 집중 증대되었다. 그에 비례하여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산문이론 자체에 대한 이론서나 번역서가 출판됨으로써 산문연구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기도 하였고, 혹은 작품과 작가에 대한 연구서가 출판되어 산문연구의 수준을 심화 제고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산문작품이 번역 출판되어 일반 독자들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독서대중에게 한국한문학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문학 연구의 초기에 산문문학이 연구자의 주목을 끌지 못한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산문의 실용적 특성 때문이다. 서양 문학의 잣대나 개념으로 산문분야에 대응하는 합당한 명칭이나 영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용

성의 특징 때문에 문학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초기 산문연구에 대한 이러한 경향은 현재 극복되고 전 산문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한문학 유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문을 제외하고서는 한문학의 전체적 모습을 옹계 설명할 수 없다는 자각과 함께, 서양문학을 평가하고 연구하는 잣대나 원리에서 벗어나 한문문화권의 문학을 한문문화권의 시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주체적 반성이 깔려 있었음이 물론이다.

그런데 산문문학을 보는 한문문화권의 독자적 시각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거기에 상응하는 독자적인 연구방법이나 시각 혹은 미학적 특성을 잡아내는 이론을 연구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산문이 가지는 본래적 특성인 실용성과 관련한 문제는 염두에 두지 않고, 다만 수사적 기교와 주제 사상적인 면에서의 문학예술성을 찾는 데 급급한 쪽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로 인해 연구가 편향되어 산문에 대한 연구가 왕성하게 진행되고 그 외연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었다.

1990년대의 연구를 살펴보면, 80년대의 주요한 성과였던 熱河日記 연구, 古文의 성격과 전개, 正祖의 文體反正에 대한 연구, 특정 작품에 대한 문체 미학적 접근 등은 90년대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문체에 있어서는 古文, 駢驪文, 小品文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졌고, 文類에 있어서는 碑誌類, 序記類, 筆記類, 辭賦類, 哀祭類 등 실용적인 문장이지만 抒情과 敘事, 議論까지 아우를 수 있는 문류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소품문에 대해서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정도로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또한 山水記, 樓亭記, 遊山錄 등에 대한 연구는 이 시기에 들어와서 새롭게 조망 받은 측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東文集成』 등의 文選集을 발굴하여 학계에 소개함으로써 당대의 문선집들의 편찬과정과 편

찬 의식을 탐색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산문 연구에는 아직 갈래의 성격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채로 특정 작가의 작품을 분석하여 개별적인 성격을 해명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각 갈래의 양식적 특성을 작품의 내적 구조와 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문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론의 개발과 문체의 발전 과정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5. 漢文批評

한문비평 연구는 60년대에 詩話 研究에서 비롯되어 70년대에는 考證爲 主의 초보적인 실증주의 방법으로 전개되다가 80년대를 전후하여 시화를 포함하여 선인들의 일반 문장에 이르기까지 비평의 연구 대상이 확대되었다. 80년대의 연구 동향은 비평가의 발굴과 고증, 비평 용어의 의미 분석, 작가의 문학관과 문학사상의 탐색, 특정 시대의 주류적 문학론의 공시적 연구, 문학론과 작품의 유기적 이해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문제점으로는 시대의 편중성, 연구방법론의 미비, 시화 연구에서 특수 이론의 확대 해석, 비평 용어의 현대적 해석 등이 지적된 바 있다.⁸⁾

80년대의 이러한 연구 동향은 90년대에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으며, 문제점도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金周漢교수는 「韓國漢文學批評研究의 近況과 問題點」이란 논문에서, 기존의 자료 정리와 연구의 근황을 살피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전망과 기대까지 제시한 바 있다.⁹⁾ 특히 과거 小康의 문학비평을 大同의 입장에

8) 李源周교수의 앞의 논문 참조.

서 살피고 이를 서구의 문학비평 방법으로 연구하여 우리의 독자적인 비평 방법을 찾아내자는 創見을 제출하였다.

90대에 접어들면서 시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詩話와 批評에 관계 설정, 특히 시화가 비평으로서 갖는 특성에 대한 논의는 더욱 적극적인 성향을 보인다. 또한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성과 중 하나로 品格 研究를 들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주자학적 사유의 극복에 주목하던 양상에 변화가 생겨서 한문학 비평에 끼친 성리학의 영향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작가가 확대된 점과 아울러 性理學者들의 문학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점은 이 시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비평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原典批評에 대한 연구가 소원하고, 문학과 다른 예술 장르와의 교섭 양상에 관한 연구 또한 미진하다. 아울러 고려전기 이전의 연구가 미진한 점과 연구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모색을 통한 독자적인 비평 이론을 정립해야 하는 점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6. 漢文教育 · 經學 · 其他

한문교육과 경학에 대한 연구도 일찍이 시도되기는 했지만 90년대에 들어와서 상당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그 성과를 살펴보면, 한문교육 관련 논저는 한문 교육의 필요성을 위시하여 한문 교육 방법 등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한문교육에 대한 것이 대부

9) 金周漢, 「韓國漢文學批評研究의 近況과 問題點」, 『慕山學報』 11집, 慕山學術研究所, 1999.

분이다. 특히 학위논문이 많은 것은 다수의 대학에서 교육대학원에 한문교육전공을 설치함으로써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된 경우이다.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시기마다 한문학계 및 교육계에서 한문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지만 2000년부터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한문이 재량과목 내지 선택과목으로 그 위상이 轉落되었다. 한문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논리적인 이론 제시와 아울러 그 교육 방법에 대한 다양한 탐색으로 한문과가 학교교육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에서의 한문교육을 비롯하여 일반 사회인들의 관심까지 포괄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한문교육에 대한 관심을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교육론 및 교재 연구, 지도 방법 등을 연구하는 教科教育學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서 이 분야를 전공하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한문교육의 性格, 目標, 內容, 方法, 評價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21세기 한문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경학이 현대학문 체계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30여년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경학은 한문학 형성의 배경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총체적인 한문학 연구는 어려울 것이다.¹⁰⁾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학 분야는 哲學科나 儒學科에서 별반 취급하고 있지 않은 실정어서 연구의 死角地帶로 존재해 왔다. 최근 일부 한문학과에서는 경학 전공자를 초빙하여 이 분야에 대해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점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하겠다. 이 분야의 연구는 주로 한국에서 경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과 시각에 대한 성과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 연구대상이 조선 후기에 치우쳐 있는데다 정약용과 같은 특정 경학가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경학가들의 설을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경학사상을 ‘반주자학’, ‘탈주자학’, ‘탈성리학’ 등으로 성급히 결론지으려 했다.

10) 趙鍾業, 「漢文學研究와 經學 및 史學의 相關性問題」, 『慕山學報』 11집 참조.

한편 각 경전별로 전문연구자가 있어 각각의 경전해석에 대한 변화, 발전의 양상을 추적하지 않고, 경학가별로 연구가 이루어져서 한 경학가의 경학세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경전에 대한 연구가 어떤 경전에 있어서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21세기에 있어서 경학의 연구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기왕의 연구되지 않은 다수의 경학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경전별로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중국경학과 비교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차근차근 축적하여 각 경전별로 경학사를 서술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종합하여 한국경학사를 서술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맺음말

이상 한국의 한문학 연구 동향과 앞으로의 과제를 이전 시대와의 연구동향과 관련하여 갈래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를 요약하고 정보화시대에서의 한문학 연구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면서 논의를 마칠까 한다.

첫째, 한문학 연구의 전 분야에 걸쳐 연구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청된다. 문학작품을 분석하여 작품 자체의 예술성을 추출하는 작업이 문학 연구의 본질임을 상기하여 이를 위한 이론과 방법의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둘째, 한문학의 갈래 분류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족문학으로서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세계문학에 포섭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갈래 체계를 세워야 한다. 이는 특히 한문산문의 갈래 구분에 있어서는 더욱 절실한 과제이다.

셋째, 작가 및 작품의 발굴 소개와 아울러 원전에 대한 치밀한 고증이 요청된다. 당시 한문학 담당층을 고려하여 지역이나 시대를 망라할 수 있는

작가층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原典에 대해서는 諸 板本の 校勘과 함께 정확한 譯註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작가나 작품의 개별적인 연구 성과를 집약하여 각 갈래 마다에 通史的인 저술이 이루어지고 이를 수렴하는 한문학사를 저술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별 연구자는 투철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야 함은 물론 각 학회나 연구기관에서는 기획 연구물을 통하여 한문학사 내지는 문화사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배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각국의 한문학에 나타난 개별성과 동질성을 아우를 수 있는 거대한 시각에서 문학 현상을 조명하는 연구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의 한문학 연구동향을 검토함은 물론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북한의 연구 동향까지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보화·국제화 시대에서 한문학 연구가 그 의의를 지니기 위해서는 과거의 문화 현상으로서의 한문학이 아닌 현재학 내지 미래학을 지향하는 학문이 되어야만 살아있는 학문으로서의 존재 의의와 가치를 확보할 것이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한문학내부에서 현재 혹은 미래로의 이월적 가치를 탐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또한 진지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저서 및 논문

- 姜玟求, 「韓國漢文學批評研究의 回顧와 展望」, 『대동한문학』 19집, 대동한 문학회, 2003.
- 金乾坤, 「高麗 漢文學 研究의 現況과 爭點」, 『한국 인문과학 연구의 현황과 쟁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 金王奎, 「한문교육학의 학문적 정립을 위한 序說」, 『대동한문학』 19집, 대동한 문학회, 2003.
- 金周漢, 「韓國漢文學批評研究의 近況과 問題點」, 『慕山學報』 11집, 모산학 술연구소, 1999.
- 金興圭, 「國文學研究方法論과 理念基盤의 再檢討」, 『문학과지성』 10권 4호, 1979.
- 김혈조, 「漢文散文 研究의 回顧와 展望」, 『대동한문학』 19집, 대동한문학회, 2003.
- 閔丙秀, 漢文學, 『國語國文學研究史』, 宇石, 1985.
- 朴性奎, 「高麗朝 漢文學 研究의 現況과 課題」, 『국어국문학 40년』, 국어국문학회편, 집문당, 1992.
- 朴英鎬, 「情報化時代와 漢文學 研究의 새로운 方向」, 『韓民族語文學』 37집, 韓民族語文學會, 2000.
- 朴熙秉, 「朝鮮時代 漢文學 研究史 檢討」, 『국어국문학 40년』, 국어국문학회 편, 집문당, 1992.
- 宋宰鏞, 「漢詩分類와 解釋을 위한 視覺의 再定立」, 『국어국문학』 100호, 1988.
- 李東歡, 「漢文學 研究의 現況과 課題」, 『韓國學論集』 제17호,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1990.
- 李東歡, 「漢文學의 갈래 原理 및 樣式 因素에 관한 試論」, 『慕山學報』 11

- 집, 모산학술연구소, 1999.
- 李炳赫, 「高麗時代 漢文學 研究의 問題」, 『한국한문학연구』 8집, 1985.
- 李炳赫, 「韓國文學史에서 論議된 漢文學의 位相에 관한 問題點」, 『慕山學報』 11집, 모산학술연구소, 1999.
- 李佑成, 「韓國漢文學 研究의 回顧와 展望」, 『한국한문학연구』 8집, 1985.
- 李源周, 「漢文學 研究 動向」, 『한문학연구』 6집, 계명한문학연구회, 1990.
- 李鍾默, 「한시 연구의 回顧와 展望」, 『대동한문학』 19집, 대동한문학회, 2003.
- 林榮澤, 「한국한문학의 20세기와 21세기」, 『大東漢文學』 19집, 大東漢文學會, 2003.
- 丁奎福, 「韓中漢文學比較研究의 歷史와 問題點」, 『慕山學報』 11집, 모산학술연구소, 1999.
- 정출현, 「한문소설 연구의 시대적 추이와 과제별 전망」, 『대동한문학』 19집, 대동한문학회, 2003.
- 趙東一 외, 『韓國文學研究入門』, 지식산업사, 1987, 1987.
- 趙鍾業, 「漢文學研究와 經學 및 史學의 相關性 問題」, 『慕山學報』 11집, 모산학술연구소, 1999.
- 車溶柱, 「韓國漢文學史의 時代區分에 대한 問題點」, 『慕山學報』 11집, 모산학술연구소, 1999.
- 崔錫起, 「韓國經學 研究의 回顧와 展望」, 『대동한문학』 19집, 대동한문학회, 2003.
- 崔信浩, 「韓國漢文學 研究의 回顧와 展望」, 『국어국문학』 제81호, 국어국문학회, 1982.

Abstract

A Study direction of Chinese literatures in Korea

Park, Young-H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 recent study trend of Chinese literatures on firm ground the existing result, dividing into Chinese poetry, Chinese novels, Chinese composition criticism, Confucianism, Chinese composition education and so on, also it is to grope a study direction of Chinese literatures from now on.

First, a study trend of Chinese poetry in the latter 1990's has decreased gradually a study Chinese poetry to be assured of 'modern times' or 'nations' and has been interested in 'women' in point of ideas.

Second, a recent study trend of Chinese novels is a deep result about an individual work and passionate interest in personal development of Chinese novels. Recent investigators pay attention to actual circumstances the latter period Chosun when created and circulated continually a series of work that had imitated a fictional biography. We should try to take a view of Chinese novels' history on the basis of East Asia and a study about a aesthetic figure of Chinese novels from now on.

Third, a study of Chinese literatures in the latter 1990's expanded enlargement of prose as if there had been prose writings and researcher, too, augmented concentratively this field. A study of Yeol-Ha essay(熱河日記) which was an important result in 1980's, character and unrollment of ancient writing etc. has being achieving continually.

Fourth, Chinese composition criticism has been accomplished actively a study about illustrated poetry in 1990's and elegant research was fruits that had been done concentratively until 2000's. But we need to study about former times of the former Koryo and individual literary criticism should be a problem awaiting solution, too.

Fifth, a study of Confucianism so far was only a research of method and vision to interpret and understand scriptures in Korea. A coming study of Chinese classics in the 21th century should be achieved a research of many Confucian who had not been studied and a special research about each scriptures, finally make a comparative study of Chinese Confucianism.

Key Word

Chinese poetry, Chinese novels, Chinese composition criticism, Confucianism, Chinese composition education, scriptures